

Aortic dissection presenting as fever of unknown origin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최수녕*, 박성지, 권태정, 강영란, 박소라, 박충환, 황진용

Aortic dissection most often presents with the severe chest pain and may have variable symptoms including fever. However, fever of unknown origin as the predominant manifestation of Aortic dissection seems to be extremely rare.¹We report the case of a patient who sustained a prolonged spiking fever with unknown origin for 17 days following acute aortic dissection. The case serves, as a remainder that prolonged fever may be the principal residual sequelae after aortic dissection.

key words: aortic dissection, fever of unknown origin

Clopidogrel 사용으로 유발된 호중구 감소증 1례

김민웅*, 조경임, 강화미, 김산, 안정명, 박정호, 김태익

메리놀병원 순환기 내과

Clopidogrel(Plavix)은 급성 관동맥 중후군 환자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 받는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혈전증 등의 위험도를 감소시킴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항혈소판 제제이다. Clopidogrel은 기존의 ticlopidine 사용 환자들에서 보고되었던 골수 기능 저하와 피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이는 또한 clopidogrel의 광범위한 사용의 한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Clopidogrel의 사용으로 인한 $0.45 \times 10^9/L$ 이하의 심각한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빈도는 0.05%로서, aspirin 사용으로 인한 0.04%와 큰 차이가 없으며, ticlopidine 사용으로 인한 0.8% 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CAPRIE(clopidogrel versus aspirin in patients at risk of ischemic events) 연구에서 절대 호중구 수가 0인 심각한 호중구 감소증 2례가 보고가 되었다. 저자들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에 Cypher 스텐트를 이용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한 72세 여자 환자에서 clopidogrel 사용 10일째 호중구수가 0이 된 중례를 경험하였기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고하는 바이다.